

10분 · 5분 · 10분 채점표

점수를 적는 표가 아니라, 왜 틀렸는지 같이 보는 표예요

10분

문제 풀기

5분

차분히 쉬기
레고·그림

10분

문제 풀기

하루 두 번 · 끝나면 반드시 같이 채점

이 표의 핵심은 점수가 아닙니다

혼자 채점하면 "몇 개 틀렸다"만 남습니다.

같이 채점하면 아이가 "내가 아는 걸 이렇게 틀리는구나"를 자기 눈으로 봅니다.

그래서 이 표에는 「왜 틀렸나」를 아이가 직접 고르는 칸이 있어요.

3분 만에 다 풀어왔다면

다시 가져가서 10분을 채우게 합니다.

남은 시간엔 푼 문제를 다시 봅니다.

쉬는 5분에는

뛰어놀지 않습니다.

레고·그림처럼 차분한 활동이 좋아요.

"왜 ~~이걸~~ 틀렸어?"

"어, 이거 알잖아?"

아는 걸 확인시켜 주는 말이지 혼내는 말이 아니예요. 혼내면 다음부터 채점을 피합니다. 그러면 이 루틴 자체가 끝나요.

※ 이 방법은 웨슬러 검사 뒤 검사자 선생님이 주신 조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. 모든 아이에게 같은 방법이 맞지는 않아요. 아이가 힘들어하면 시간을 줄이거나 쉬어 가세요.

오늘 채점

날짜 _____

맞은 개수보다 「왜 틀렸나」가 중요합니다. 아이가 고르게 해 주세요.

1

맞은 개수 _____ / _____ 다시 읽어봤나요 ☐ 네 ☐ 아니요

틀린 것은 왜 틀렸을까요? — 아이가 고릅니다

몰라서

안 읽어서

실수로

다른 이유

2

맞은 개수 _____ / _____ 다시 읽어봤나요 ☐ 네 ☐ 아니요

틀린 것은 왜 틀렸을까요? — 아이가 고릅니다

몰라서

안 읽어서

실수로

다른 이유

3

맞은 개수 _____ / _____ 다시 읽어봤나요 ☐ 네 ☐ 아니요

틀린 것은 왜 틀렸을까요? — 아이가 고릅니다

몰라서

안 읽어서

실수로

다른 이유

4

맞은 개수 _____ / _____ 다시 읽어봤나요 ☐ 네 ☐ 아니요

틀린 것은 왜 틀렸을까요? — 아이가 고릅니다

몰라서

안 읽어서

실수로

다른 이유

5

맞은 개수 _____ / _____ 다시 읽어봤나요 ☐ 네 ☐ 아니요

틀린 것은 왜 틀렸을까요? — 아이가 고릅니다

몰라서

안 읽어서

실수로

다른 이유

✓ 오늘 "안 읽어서"가 몇 번이었나요? 그게 줄면 되는 거예요.